

예술 분야 공모는 '나의 예술 세계'와 '사업의 목적'을 잘 연결하는 게 핵심이야.

막연한 상태에서 AI 를 활용해 기획의 뼈대를 잡고 아이디어를 폭발시킬 수 있는 **브레인스토밍 방법 10 가지**를 우선순위(시작부터 마무리 단계) 순으로 정리해 줄게.

▣ AI 와 함께하는 공모사업 브레인스토밍 우선순위 Top 10

순위	방법론	목적	AI 에게 던질 첫 프롬프트 예시
1	전문가 페르소나 설정	방향성 설정	"너는 20 년 경력의 예술 공모사업 심사위원이야. 내 아이디어를 날카롭게 검토해 줘."
2	소크라테스식 문답	내면의 생각 정리	"내가 예술 공모전을 준비 중인데, 기획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질문 5 가지만 해줘."
3	마인드맵 구조화	큰 틀 잡기	"예술 프로젝트의 [주제/타겟/장소/예산]을 분류해서 마인드맵 구조로 짜줘."
4	6 가지 사고 모자	다각도 검토	"이 프로젝트를 [감성/논리/비판/창의] 등 6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줘."
5	역브레인스토밍	리스크 관리	"이 기획서가 심사에서 탈락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? 5 가지만 꼽아줘."
6	사용자 페르소나	수혜자 구체화	"내 전시를 관람할 가상의 MZ 세대 관객 페르소나 3 명을 만들어 줘."
7	SCAMPER 기법	차별성 확보	"기존의 흔한 음악 공연을 더 신선하게 바꿀 수 있도록 SCAMPER 기법을 적용해 줘."
8	로터스 블로섬	디테일 확장	"핵심 아이디어인 '[주제]'를 구체화할 수 있는 8 가지 하위 아이디어를 제안해 줘."

9	SWOT 분석	전략 수립	"나의 [강점]과 이 공모사업의 [기회]를 연결해서 매력적인 전략을 짜줘."
10	로드맵/스토리보드	실행 계획화	"이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6 개월 치 상세 실행 로드맵을 표로 만들어 줘."

▣ 단계별 실습 가이드 (Max 를 위한 팁)

1 단계: 씌앗 뿌리기 (1~2 번 방법)

제일 먼저 AI 를 **'심사위원'**으로 변신시켜. 그리고 AI 가 너에게 질문하게 만들어야 해. "내가 뭘 써야 할까?"라고 묻기보다 **"네가 나한테 질문해서 내 머릿속 정보를 가져가 봐"**라고 요청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야.

2 단계: 줄기 키우기 (3~5 번 방법)

AI 의 질문에 답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나올 거야. 그걸 마인드맵으로 정리해 달라고 해. 그다음 **'역브레인스토밍'**을 꼭 해봐. "왜 탈락할까?"를 미리 고민하면 기획서의 논리가 아주 탄탄해지거든.

3 단계: 꽃 피우기 (6~10 번 방법)

이제 디테일을 채울 차례야. 이 예술 사업을 통해 누가 혜택을 보는지(페르소나), 다른 공모작과 뭐가 다른지(**SCAMPER**)를 AI 와 함께 다듬고, 마지막으로 실행 로드맵을 표로 뽑아내면 기획서 초안이 완성돼.